

【발표논문】

전통과 제도개혁 : 19 세기후반기의 중국의 양무운동 (洋務運動)

꾸어 웨이똥

(原文 韓國語 翻譯 : 李鋼哲)

중국과 영국 간의 아편전쟁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중화전통의 고전문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이전의 중화문명의 변화는 국내에서의 문화통합과정이었으며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로 동방문명(예를 들면 인도의 불교, 아랍의 이슬람교, 당조시기의 경교(景敎)도 기독교 이단(異端)으로서의 동방교회에 지나지 않음)이며 서양문명의 영향은 간접적이거나 아주 미미한 것이었다.

그 이후 중국과 서양의 2 대문명이 충돌하면서 전통과 혁신은 그 시대 두 개의 큰 주제였다. 한편으로 중화 전통문명은 서서히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변이와 쇠퇴현상이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경우 중화문명 속의 다른 문명, 특히 서양 문명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흡수함으로써 세계의 다른 문명체계와의 긴밀한 융합이 진행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 전통문명의 일부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계승 되었으며 중화문명은 여전히 그 민족적 특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19 세기 후반의 양무운동은 사회형태전환의 관건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양무운동 시기는 기물(물질)면에서의 변동 시기이고 무술유신(戊戌維新) 시기(5.4 운동전후 시기라는 설도 있음)는 문화변동의 시기이며 신해혁명(辛亥革命)시기는 제도변화의 시기라고도

하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세 시기는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얽혀있으며 셋 모두가 19 세기후반의 양무운동 중에 발생하고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1. 제기(製器)

1840 년 6 월 21 일, 영국의 동방원정군은 광저우의 주장커우(珠江口) 밖까지 침입하여 아편전쟁이 발발하였다. 중국은 패전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 당시의 일치된 결론은 [기물(器物:기계 등 제품)이 열세했다] (「器不如人」) 였다. 따라서 아편전쟁 후의 당시의 선각자들은 나라를 구하는 첫째 방법은 [서양 오랑캐의 선진기술을 배워서 그 힘으로 서양을 제압하자(師夷長技以制夷)는 것이었다. 소위 “장기(長技:선진 기술)”란 주로 기술과 기물이다. 그 시기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문화나 전통제도가 뒤떨어졌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고 [서양 오랑캐(夷)는 포화(砲火) 외에는 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 ¹ (「该夷人除砲火以外, 一无长技」) 는 것이 당시 중국당국과 지식인들의 서양문명에 대한 최초의 인식 이었다.

제 2 차 아편전쟁(애로호 전쟁)이 일어나 영불연합군이 베이징(北京)을 공격함에 따라 함풍제(咸豐帝)는 도망치고 원명원(圓明園)은 소실되었다. 굴욕적이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 조야(관민)에서는 [기술이 낙후되었다]는 인식만 깊어 갔다. 19 세기 60 년대에는 중화문명체계 속에 서양의 물질문명 (洋器) 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점차 위정자(為政者)들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다. 정귀판(曾國藩)은 서양의 포함(砲艦)을 구입하는 것이 중국을 파국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일”(第一要務)」라고 보고 있었다. 리홍장(李鴻章)도 [서양인들은 우수한 총이나 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¹中国史学会主编『鴉片戰爭』中国近代史資料縱刊(一)神州国光社(上海)1954年版、第122쪽

할 수 있다.]² (「西人專恃其槍炮輪船之精利，故能橫行于中土」)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화자(開明者)들의 추진으로 중국역사상 제 1 차 근대화 운동이라 불리는 양무운동이 시작된다.

[자강] (自強)을 취지로 하는 양무운동은 처음에는 군사부터 시작했다. 19 세기 60 년대 이후, 중국최초의 서양무기를 장착하고 서양교관을 채용한 육군으로 상군(湘軍)과 회군(淮軍)이 잇따라 나타났으며 중국최초의 근대 해군으로 북양과 남양의 해군(水師)이 나타나고 중국최초의 근대 무기공장인 안칭군계소(安慶軍械所), 텐진기기국(天津機器局), 산둥기기국(山東機器局)등이 출현하며 중국최초의 근대 함선제조공장인 푸저우선정국 (福州船政局), 지양난제조국(江南製造局)이 설립되며 중국최초의 군사용 근대통신 시설인 진후전보선(津滬電報線), 텐진전보총국(天津電報總局)등이 나타났다. 서양문명의 도입과 모방은 다른 분야는 없었고 바로 무기제조부터 시작되었다. 중국근대화운동은 주로 군사가 이끄는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근대화 개혁도 대부분은 군사개혁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거의 중국의 근대화 과정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군사개혁은 언제나 다른 개혁보다 한 박자 빨랐던 것이다. (19 세기의 양무운동파 들은 우선적으로 군사공업을 시작했고 민간공업 창설은 70 년대이후로 밀렸다. 다른 방면의 개혁은 매년 군사개혁에 의해 이끌려왔다. 근대적인 군사공업은 대기계 생산체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간공업도 뒤따라 창설되었다. 또한 군대를 조직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였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재정개혁과 근대 은행체계의 확립이 불가피했다. 군사들의 훈련에는 우선 장교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근대적 군사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신식군대를 만들려면 서양에서 배울 필요가 있으니 제도와 사상 면에서의 변화를 유발했다 등등). 19 세기 60 년대부터 90 년대 중반까지의 양무운동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²宝璽等編『籌弁夷務始末』(同治朝)中華書局(北京)2008年版、第3476쪽

근대의 대기계공업은 체계적인 산업이다. 함선이나 총포를 만들려면 기계가 필요하고 기계를 제조하려면 철강이 필요하고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이 필요하고 석탄 채굴 후에는 수송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 철강업, 광업, 운수업, 동력업(動力業:엔진)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중국의 근대 수송체계도 철도건설부터 시작했으나. 시발점은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1873 년 영국의 란손 루이비사는 동치(同治)황제의 결혼선물로 혼례철도를 청나라에 만들어 주겠다고 건의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근대 문명발전의 추세는 가로 막을 수 없었으며 1878년에는 리홍장이 당산개평(唐山開平) 탄광을 개업했는데 그 석탄수송 때문에 소규모 철도를 건설하였다. 민중들의 분노가 무서워서 처음에는 마차(馬車)로 견인하다가 나중에는 소규모의 기관차로 바꾸었다. 1886년에 와서야 궤도철도를 확대하였는데 그때의 궤도폭이 4척 8촌반(四尺八寸半)이었으며 그것이 나중에 중국철도 궤도의 기준이 되었으며 기관차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갑오전쟁(청일전쟁) 전까지 중국의 천진에서 다구(大沽), 란저우(灤州)까지의 철도를 부설하고 그것을 관외(關外)로 확대하였으며 전체 길이는 705 리였다. 인쇄업의 기술도입도 빨랐는데 1798년에 체코의 발명가인 알로이스 제네펠더가 발명한 석판인쇄술(lithograph)이 아편전쟁 전에 광저우로 전해졌으나, 그 중에서 영향력이 컸던 것은 『신보』(『申報』)관주(館主)인 영국상인 E 마조가 중국에서 설립한 점석재석인국(點石齋石印局)이며 그는 1884년 5월에 상해에 “점석재화보”를 설립하고 그 후로 20년간동안 석판술이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발전하였다. 서양의 석인술은 중국식 목각에 비해 우수한 점이 많아 1883년에 황식권(黃式權)은 『송남몽영록』(『淞南夢影錄』)에서 [서양의

석판은 반듯하게 갈아서 거울 같고 거울 투영방식으로 돌 위에 글을 찍고 그 다음 풀을 붙이고 유묵(油墨)을 바르면 대량의 서적이 하루 만에 완성되며 소 털처럼 부드럽고 코뿔소 뿌리처럼 밝다] 고 기술하였다. 그 석판인쇄술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난 한자연인술(中文鉛印術)은 현대중국의 인쇄술과 직접 연결된다. 석인술(石印術)과 연인술(鉛印術)의 채용은 서적과 신문의 고속 대량 인쇄를 가능하게 했고 또한 인쇄비용을 많이 절감시켜 문화서적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하여 훌륭한 조건이 갖춰졌다. 상인이 돈벌이를 위해 실시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문화의 급속한 대중적인 전파를 밀어주는 꼴이 되었다.

근대적 도시건설도 시작 되었다. 1867년에는 “상해수룡공소(上海水龍公所)”가 성립되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된 전문적인 소방대였다. 1881년에 영국인이 상하이에서 수도회사를 설립하여 도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음용수가 더욱 청결하고 편리해졌으며 1886년에는 상하이에서는 하수배관을 부설했으며 시가지의 오수가 그냥 흘러가는 일은 점차로 사라졌다. 1882년 상하이에 중국최초의 가로등이 설치되었는데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전기 불빛에 사람마음이 울렁거리 불안해지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는 루머가 일시 떠돌았으나 ……나중에는 무해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접근금지하는 것을 그만두었다]³. 이해 여름에는 전화(역음으로 [텔레폰])도 상하이탕에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소비구조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항구를 개방했더니 값싸고 질이 좋은 박래품(舶來品)이 막을 수 없는 기세로 국내의 전통물산의 고유시장에 밀려들어왔다. 1850년 상하이의 외국화물의 수입총액은 390.8 위안이었으나 1860년에는 3,667.9 만위안으로 9 배이상

³徐珂辑：《清稗类钞》，北京：中华书局，1986年版，第6038쪽

급증했다⁴. 1899년 일본의 근대중국학 연구의 일인자인 나이토 코난(内藤 湖南)은 중국복방을 고찰하면서 베이징에서 장자커우(張家口)로 가는 도중에 난커우샤우전(南口小鎮)을 견학하고 [난커우의 여관에는 생각 밖으로 양식 욕조도 있고 서투른 필법으로 Bathroom 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또한 양변기도 제대로 있고 길에는 외국관광객도 많아, 영국인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⁵ 라고 기록하고 있다. 새것을 좋아하고 남다른 것을 추구하며 양식을 따르는 것이 패션이 되고 양화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상이 되었다. 복장은 인류의 생활문명의 변천을 상징하는 구체적이고 섬세하며 특히 외적으로 분별하기 쉬운 지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 복장은 품이 너르고 소매가 너른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몸에 딱 맞는 복장으로 변했으며 특히 공장노동에 적합한 복장으로 변했다.

도시 사람들에게 양복과 서양식 액세서리의 영향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천진위(天津衛)에서는 [서양인을 태운 인력차를 끄는 어린 마부는 소매가 짧은 옷에다 짧은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짚삿갓을 쓰고 입에는 잎 담배를 물고 손목시계를 차고 가슴에는 배지를 달고 자기가 돌아보아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래도 몸새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관찮게 생각하는]⁶모양새이다. 상하이탄의 패션은 [여성에게 없어서는 안될 장식으로는 높은 뽕쪽구두, 팔에는 검정담비 모피의 손토시 하나, 다이아몬드 또는 보석으로 된 단추 2,3 개 달리고, 가죽 목도리 하나, 금테 안경, 그리고 머리장식,비단 스카프 등이 유행되고 있었다. 한편 남성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으로는 양복, 외투, 서양모자, 가죽구두, 지팡이, 코안경, 어느 정도의 서양의 말(외국어)]등이 유행이었다⁷. 그들의 의복과 장식은 부근의 도시나 향촌에서 온 것이

4 张仲礼：《近代上海城市研究》，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0年版，第108-114쪽.

5 内藤湖南、青木正二：《两个日本汉学家的中国纪行》，王青译，北京：光明日报出版社，1999年版，第84쪽

6 張焘『津門雜記』卷下、天津古籍出版社1986年版、第137쪽

7 《西装叹》，《申报》，1912年4月22日。

아니라 대양의 저쪽에 있는 구미에서 온 것이며 그들은 [세계시민] (「世界公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소비생활은 점차적으로 봉건적 등급제의 속박을 벗어나 개성화 되고 대중화되고 서양화된 특성을 나타냈으며 더욱 서양송배가 근대 소비생활의 중요한 기조가 되었다⁸.

공업화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되고 중국은 제 1 차 근대 도시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급속하게 발전되어 도시는 정치통치의 중심으로 각 부문이 수직적이게 되었으며, 수평적인 연결이 희박한 전통도시로부터 경제무역을 위주로 하는 망연결형 근대 도시 형태로 변형 되었다. 도시는 전례없이 경제면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얻었으며 도시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농촌은 도시의 지배를 받고 소도시는 대도시의 지배를 받고 대도시는 통상항만도시의 지배를 받으며 통상항만도시는 세계 각 대시장의 상황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와의 일체화 물결에 휘말렸다. 그리고 장강삼각주, 주강 삼각주, 화북지구의 3 대 도시 밀집구가 점차 형성되고 특히 상하이로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의 발전이 가장 눈부셨다. 1843 년에 항만개방 이전에 상하이 (上海縣) 의 인구는 50 만명밖에 안되며 기껏해야 중등규모의 도시로서 난징(1852 년에 90 만인구), 항저우(아편전쟁 전에는 60 만인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1862 년에는 상하이시의 인구만 해도 300 만명에 달하여 일약 중국 나아가서는 세계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⁹. 1893 년 대만과 동북을 제외한 중국의 도시는 1779 개였고 도시인구는 23,513,000 명으로 증가하며 도시인구가 전체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6%였다¹⁰.

8 譙珊：《近代城市消费生活变迁的原因及其特点》，载《中华文化论坛》，2001年第2期。

9 《北华捷报》，1862年2月21日，1863年3月12日。

10 [美]施坚雅(G.William Skinner)主编：《中华帝国晚期的城市》，叶光庭等译，北京：中华书局，2000年版，第264页

전체적으로 30 여년의 [동광신정] (同光新政)을 거쳐 중국의 국력은 크게 올라갔다. 그러나 기물 (器物:물질) 측면의 발전 만으로는 부족하며 기물 측면의 변화는 다른 영역의 변화를 끌어내게 된다. 중국은 [기물이 낙후된 것]만은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소질이 남보다 못한 것] (「人不如人」)이다. 봉건적인 전통의 질곡(속박)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억압받고 사람들의 재질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질은 또한 단기간에 높이기 힘든 것이며 이것은 기술개혁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근대화 개혁은 서서히 더욱 폭넓은 방향으로 전개 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2、문화

아편전쟁 이후 서양학은 완전히 동양학을 짓누른다. 그 과정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서양학은 우선은 사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속에서 반향을 일으키며 이런 사람들의 신분은 각기 다르나 모두 문화인인 것은 틀림없다. 소위[학자는 서양학을 배워야만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다]¹¹는 것처럼 학자들은 당연히 문화영역에 중심을 두고 있었으나 아편전쟁 시기와 전후의 한 시기에는 그들의 서양에 대한 인식은 혼돈되어 있었으며 표상적이었다.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은 술선수범해서 세계를 내다보고 있었던 선구자들의 자아인식의 한계가 있었다. 위원(魏源)의 『해국도지』 이든 서계척(徐繼畬)의 『영환지략』 (『瀛環志略』)이나 요영(姚瑩)의 『강유기행』 (『康輶紀行』)이나 모두 중국인이 최초로 쓴 서양의 개황을 소개하는 선구적인 서적으로서 귀중한 것이지만 그들이 서양을 소개함에 있어서 너무 천박한 지식과 단편적인 지식에 의한 것으로서 외부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저작은 기본적으로 서양학의 저작을 인용하여 자기의 지식체계를

¹¹ 劉大鵬『退想齋日記』山西人民出版社(太原)1990年版、第102쪽

만들어낸 것 이었다. 위원은 이런 방법은 [서양적인 서양학]¹²이라고 지적한바 있으며 주로 번역과 편집에 주력했다. 상기에서 보듯이 세계를 내다보았다는 선구자들은 번역과 편집이라는 수법으로 서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누락과 오류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다.

서양문화가 중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기독교]에 의한 것 이었다. 1850 년대 전후에 기독교의 포교활동은 우선 먼저 사회하층의 문인이나 민중 속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폭동인 태평천국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홍수전(洪秀全, 1814~64 年)은 스스로 [천부](「天父」)신에게서 임명된 [진명천자](「真命天子」)로 자기를 인식하고 자신을 [태평천왕대도군왕전] (「太平天王大道君王全」)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의 리더들은 [배상제교] (「拜上帝教」)를 국교(国教)로 정하고 신을 신봉하는 것은 어떤 곳이든 성전으로 여겼다. 1851 년초 [배상제교]라는 서양의 종교와 중국의 농민들과 결합된 특이한 부대가 [금전봉기] (「金田蜂起」)를 일으키고 나라의 이름을 [태평천국](「太平天国」)이라 하였다. 1853 년 3 월 19 일에는 50 만명의 태평군이 난징을 점령하고 [천경] (「天京」)으로 개명하여 수도로 정했다. 홍수전이라는 과거(科擧)에도 급제 못한 실패한 서생(書生)이 자기도 완전히 이해못한 서양의 종교를 이용하여 기세를 타고 청나라정부와 대립하는 새로운 정부를 설립한 것이다. 이 정권은 10 여년 유지 되었으나 기독교가 중국에서 광범한 토대를 갖고 있지 않았기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

양무운동파들은 [서방교회] (「西教」)나 [서방정치] (「西政」)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서양문명에 대한 관심은 [서양기물] (「西器」)이나 서양기술(「西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양무운동은 기물(器物) 측면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며 서학(西學)과

¹² 魏源『海国图志』(大西洋)卷三十九(原叙)岳麓書社(長沙)1998年校注本。

서양문화를 도입하고 중국근대 문화와 교육사업을 넓은 면에서 개설하기 시작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중국의 근대적인 신학당(학교)이 서양인에 의해 최초로 설립되고 1860년까지 기독교신교(新敎)는 중국에서 50개 이상의 각종학교를 설립하였다. 카톨릭 학교에 관한 통계자료가 부족하지만 신교가 설립한 학교보다는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인에 의해 설립된 신식학당은 양무운동파들이 설립한 것이 많은데 3가지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동문관(同文館)과 같은 어학 학교이며 베이징, 항저우, 상하이 등지에 설립되어 외국어 교육이 진행되었다. 두번째는 군사 학교이며 1866년에 좌종당(左宗棠)이 마웨이(馬尾)에 설립한 구시당예국(求是堂芸局)이며 이는 중국근대 최초의 해군학당이었다. 또한 리홍장이 텐진에 설립한 최초의 육군학당인 텐진무비학당(天津武備學堂)등은 중국근대의 군사교육의 선구였다. 세번째는 기업에 부속된 전문적인 기능을 훈련하는 간이학당(簡易學堂)이었다. 양무운동 시기에 중국정부가 설립한 근대적인 학당은 적어도 30여개 된다.

19세기 70년대에는 양무운동파들이 해외에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유학생을 보냈는데 1872-75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 120명의 학동(學童)을 유학보냈고 육군으로서는 1876년에 독일에 7명을 유학시켰으며 해군으로서는 1877-85년 사이에 77명을 프랑스와 영국에 파견했다.

신문분야에서는 중국근대 최초의 신문업은 외국인이 만들었다. 1822년 9월 12일에 카톨릭교가 마카오(澳門)에서 밀봉화보(『蜜蜂華報』)를 창간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간행된 최초의 외국어 신문이었다. 1890년대 중반에는 중국에서 12종류의 신문이 간행되었는데 주로 상하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매체를 필요로 하고 새로운 사상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매체의 탄생에 연관되었으며 서로 보완관계에 있었다.

과학분야: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된 중국의 전통적 지식체계는 능통성과 모호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전통적 4 개의 분류법에 의한 학문은 경(經), 사(史), 자(子), 집(集)으로 집약되고 그것이 모든 지식을 망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과 지식의 축적에 의하여 각 학과분야는 근대적 노동분업의 세밀화와 전문화를 필요로 하며 그에 따라 근대적 과학체계에 따른 분류화와 전업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분류과정은 서양에서 시작되었다. 근대이래 중국인의 과학기술에 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학과류를 나누지 않고 굵기를 분별하지 않는] (「門類不分, 粗細不辨」) 중국의 전통적인 구학(舊學)을 바탕으로 해서는 새로운 학문의 발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새로운 학문에 적응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서양의 학문체계를 바탕으로 중국의 학문체계를 재구축 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1862 년에 설립된 [경사동문관] (「京師同文館」)은 1867 년에 학과설정에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어학 외에도 산수, 화학, 만국공법, 의학생리, 천문, 외국역사 지리 등 과목을 설치하였다.

생물학: 1858 년에는 『식물학』(Elements of Botany)이 출판되었는데 그 원본은 영국의 식물학자인 린들리(John Lindley)의 저작이며 중국에 와있던 영국의 교사 윌리엄슨과 중국근대의 저명한 과학자인 이선란(李善蘭, 1811-82)이 공동으로 번역출판한 것이었다. 이 책은 처음으로 중국인에게 현미경에 의한 식물세포의 발견이 가능하다는 학설을 제시하고 또한 근대적 실험에 의하여 구축된 식물체 각 기관의 생리적 기능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지구상에서 위도(緯度)의 차이에 따라 식물분포도 다르며 또한 근대식물분류학도 소개하였다. 그 중에서 식물학과 식물학(botany)과 식물분류 단위로서의 과(「科」family)라는 단어는 이

책에서 처음 만들어졌다¹³.

화학: 18 세기말부터 19 세기초까지 원소론(元素論)과 원자론(原子論)이라는 두 개의 근대화학의 초석으로 되는 이론이 탄생하며 19 세기 후반에는 서양에서는 무기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과 물리화학 등 4 대 화학분야를 구축하여 근대화학의 기초가 형성된다. 1867 년에 경사동문관에서는 화학수업이 최초로 시작되고 1880 년에는 상하이격치서원(上海格致書院)에서는 중국의 과학자인 서수(徐壽)와 선교사인 프라이어(부란야:傅蘭雅)가 공동으로 번역출판한 화학감원(『化学鑑原』)등 서적이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화학지식의 강의와 세미나도 진행되었다. 徐壽는 처음으로 요소, 바륨, 망간등 24 개의 화학원소명을 번역했다.

의학: 서양의학의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전환되는 시기부터 예수선교사에 의해 중국으로 유입되어 그 후 확대되었다.

지학: 지학(地学)의 연구는 중국에도 오랜 전통이 있으나 서양학과의 교류가 진행된 최초의 학과였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지학이며 또한 주로 지학의 두 개의 분류인 지리학과 지질학분야의 전 단계 연구에 그쳤다. 1872 년에 중국근대초기의 과학자인 화형방(華蘅芳)은 책 두권을 번역출판했는데 그것은 중국의 지학분야에서의 선구적 서적이었다. 라이알의 지질학강요(『地質学綱要』, 『地学浅釋』라는 중국어로 출판)와 미국인인 다나(J.D.Dana)가 쓴 광물수첩이었다. 1896 년에 추대균(鄒代鈞) 등은 우창(武昌)에서 중국최초의 지리학 연구기구인 역인서문지도공회(「訳印西文地圖公会」)를 설립하였다. 이 공회의 규약에는 [천하의 지학에 뜻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나 입사하여 협력하여 학문을

¹³ 汪子春「我国伝播近代植物学知識の第一部訳著」『自然科学史研究』1984年第1期、第90-96쪽。

뒤을 수 있다]고 쓰여 있다¹⁴.

이상에서 보듯이 양무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각 분야에서의 학과가 대량으로 [이식]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고유의 학과에 대한 개조와 재구축이 진행되며 중국문화에 대한 자각적 반성과 소위 [도는 역탐구에 있다](道在反求)¹⁵ 는 경지에 도달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학] (西洋學問) 이 유기적이고 계통적으로 [중학] (중국학문) 에 융합되어, 새로운 학문으로써 서양도 중국도 아닌 또 중국이기도 서양이기도 한 근대 [신학] (「新學」)이 창출 되었으며 중국과 서양의 학술이 처음으로 하나의 새로운 학술체계 속에 통합되었다.

3. 제도

헌정제도(憲政制度) : 중국인이 서방의 근대 정체(政體)에 관한 초기적 이해는 주로 3 개방면이 있었다. 국회제도, 헌법체계, 책임내각 이었는데 통 털어 말하면 헌정사상(憲政思想)이다. 한가지 재미나는 현상은 중국근대의 서양헌정사상에 대한 소개는 팩키지로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선후가 있고 시간상에서도 같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초에 중국에서 전파된 것은 국회에 관한 사상이다. 19 세기 40 년대에 임칙서(林則徐)가 편찬한 『사주지(四洲志)』)와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는 최초로 서방의 의회제도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 영국국회에 관한 소개에서 [국가의 큰일은 왕과 관민이 국회(Parliament)에서 의논한다]고 쓰여 있고 또한 미국국회의 관한 소개는 더욱 상세하여 [의원(議院,Congress) 을 설립하여 나라의

¹⁴ 張靜蘆『中國近代出版史料』(二編)群聯出版社(上海)1954年版、第76쪽。

¹⁵ 中國史學會主編『戊戌變法』(中國近代史資料叢刊)(一)上海人民出版社2000年版、第30쪽。

법령을 제정하며 의원은 두 개로 나뉘어져, 하나는 참의원(Senate)이라하고 하나는 중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이라 한다. 무릇 경제무역, 과세징수, 법률소송, 군사의 중요한 일 등은 반드시 양원에서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¹⁶.

양무운동 시기에 의회사상은 더욱 폭넓게 전파되었다. 1884년에는 조야의 일반적인 선전 뿐만 아니라 관료가 조정에 직접 상소 건의하는 일까지 나타났다. 그 해에 최국인(崔国因)에 의해 편찬된 의원 설립에 관한 건의가 조정에 상소 되었다¹⁷. 또한 더욱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양광(兩廣:광동과 광서) 총독인 장수성(張樹聲)에 의한 의원설립에 관한 건의(유서로 됨)였다. 흥미로운 것은 의회와 헌법이라는 서양 정치제도에서는 통합되어 있지만 중국에서는 분리되어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의회사상이 먼저 도입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헌법사상의 도입은 뒤떨어졌다. 중국인의 헌정사상에 관한 이해는 의회제도로부터 시작되는 반면 헌법에 대해서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 원인은 의원(議院)이라는 것은 구체적 실물이기에 알기 쉬운데 헌정(憲政)이란 추상적이고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헌법은 의회에 비해 군주(君主)에 관한 근본적 법적제한이라는 요소가 있고 또한 [주권재민] (「主權在民」),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헌법지상] (「憲法至上」), [제헌] (「制憲」), [위헌] (「違憲」) 등을 가지고 법률화 제도화와 신성화(神聖化)를 강조하고 있기에 전제정체(專制政體)가 견고한 시대에는 전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1895년전에는 헌법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중국에서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초기 계몽사상가인 정관응(鄭觀應)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가 1895년에 만든 책 『여진차량부랑서』 (『與陳次亮(陳焜)部郎書』)에서는 [국회를 열고 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¹⁶ 魏源『海國圖志』卷六十。

¹⁷ 孔祥吉「清廷關於設立議院的最早爭論」『光明日報』1988年8月24日。

구국의 중요한 방책으로 제기한다¹⁸. 같은 시기에 제안된 『치안 5 책』(『治安五策』)의 마지막 페이지에도 [헌법제정]이라 적혀 있다. 그 중에서 [의원설립도 중요하나 헌법도 제정해야 한다], [헌법이 없으면 전제(專制)가 어려워지고 관리의 권력이 크게 되면 백성들이 무권력이 되며 그렇게 되면 국정을 의논할 수가 없고 상하의 장벽이 생겨 민심이 분산된다]¹⁹ 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군사제도: 청나라의 군사발전을 대략적으로 말하면 3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함풍(咸豐) 이전의 8 기(八旗)와 녹영(綠營)단계, 함풍으로 부터 동치(同治)년간의 상군(湘軍)과 회군(淮軍) 단계, 그리고 갑오년 특히 경자(庚子)년 후에 추진된 신군(新軍)의 단계이다. 제 2 단계와 제 3 단계는 중국근대의 군사제도의 최초 확립기였다.

재정제도: 청나라의 재정체제는 순치(順治)시기에 최초로 확립되고 옹정(雍正)시기에 완성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계률(戒律)이 엄격하고 해협향(解協饗: 정부 부문 간에 서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19 세기 40 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정태적(靜態的)인 고정화된 재정체계는 항상 변동하는 시국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경직화된 수입체계와 동태적(動態的)인 지출체계 사이에는 갈수록 맞물리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다. 먼저 아편전쟁 등 연속되는 대외전쟁의 지출과 전후(戰後)의 조약배상(條約賠償)에 의해 청나라 재정은 전에 없이 예산 외 지출이 늘어나고 더욱 태평천국 혼란이 발생하면서 원래 중요한 자원 지역 이었던 곳이 태평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해협향(解協饗)제도는 전면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대규모의 전쟁에 의해 국고는 고갈이 나고 옹정(雍正)년간에는 중앙금고에 6,7 천만냥(萬兩)의 은비축(銀備蓄)이 있었으나

¹⁸ 『鄭觀應集』上海古籍出版社 1988 年版、第 360 쪽

¹⁹ 侯宜杰「關於首倡君主立憲者之我見」『文史哲』1889 年第 5 期、第 50-53 쪽.

함풍 3년 6월 12일 (1853년 7월 1일)에는 재정부 장부에 지출가능한 은(銀)이 22.7만냥(萬兩)뿐이었으며 국가재정은 [지금까지 본적 없는 궁핍화 상황]²⁰에 직면했다.

국가재정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재원을 늘리고 지출을 절감해야 한다. 때문에 양무운동 전후에는 새로운 재원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큰 항목으로는 리금(厘金: 상품의 지방통과세, 역자주)이라는 세금이 점차적으로 토지세 이외의 제 2대 세수재원이 되고 관세(關稅)가 제 3대 세수원이 되며 그 외에도 외채, 공채 및 관청이 경영하는 양무기업(洋務企業)의 영리수입이 있었다. 그 중에서 리금 이외의 각 수입재원은 근대적 세금재원의 형태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것은 중국 경제사에서 크나큰 전환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¹.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서 오래동안 지속 되어 왔던 봉건적 재정체제가 서서히 근대적 재정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제도: 청나라의 행정제도의 변동은 먼저 외국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서로부터 시작되며 1850년대에는 중국근대의 세관제도가 초보적으로 확립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외국인에 의해 조종(操縱)되었으며 소위 [양관] (「洋關」: 서양사람의 세관)에 지나지 않았다. 1860년에 청나라는 [총리아문] (「總理衙門」)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양무운동의 시작을 나타내고 크나큰 의의가 있었다. 청회전 (『淸會典』: 청나라의 정치제도에 관한 사서, 역자주)에서는 이 기구의 직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즉 [각국과의 조약을 관할하고 조정의 덕신(德信)을 명확히 하며 대부분의 수륙입출(水陸入出)에 과세하는 것을 관리하며 배(船)와 차량의 항행을 관리하며 서적의 출판관리, 화폐의 관리, 외국과의 국경관리, 문서의 번역과 전달(매체)의 관리, 국민교육의 관리 등]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중국의 관료기구의

²⁰ 中国人民銀行參事室史料組『中国近代貨幣史資料』第1輯上冊、中華書局(北京)1964年版、第176쪽。

²¹ 黃浚『花隨人聖庵摭憶』上海古籍出版社1983年影印本、第367-368쪽。

근대화는 대외 교섭기구의 설립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하면 흥미진진하다.

결국은 양무운동 등으로 조성된 이런 변화를 거쳐 1911 년에 중국에서는 드디어 제도문명이 전환되는 대혁명-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났다. 신해혁명의 발발은 중국을 260 여년 통치한 청나라의 종언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2 천여년 지속된 봉건군주 전제제도(封建君主專制制度)를 근본적으로 전복시켰다는 것을 선고하였다. 근대 제도문명의 산물로서 헌법, 국회, 민국(民國) 등이 중국대지에서 처음 나타나고 그때로부터 공화(共和)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정통적인 정치체제로 인정되었으며 중국의 정치제도는 근대 문명제도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한걸음을 내디뎠다.